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양면성: 공론장의 재강화와 약화의 갈림길*

송경재**

이 연구는 언론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특성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했다. 세부적 분석 기준은 하버마스(Habermas)가 제시한 이념화된 공론장의 조건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인터넷 공론장의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양면성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참여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상호주관적인 논쟁의 공간으로 발전했다. 둘째, 인터넷 언론은 기존 오프라인 언론과 함께 인터넷 공론장의 주요한 정보공급자이자, 중개자, 수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 활성화 요인은 인터넷 정치토론장의 형성과 이해관계의 통합이었다. 반면,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을 약화할 수 있는 요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이념적 분극화, 플랫폼 종속, 플랫폼의 알고리즘 필터 버블 등이었다. 이 요인들은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양면성으로 공론장의 분화와 수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어 : 인터넷 언론, 공론장, 민주주의, 재구조화, 양면성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3124). 이 글은 필자의 2020년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정치센터 & 미디어문화센터 10월 세미나 중 “미디어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가?” 원고를 바탕으로 전면 재수정 작성한 것이다. 세심한 심사를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사위원회께 감사드립니다.

**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1. 서론

주지하다시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른바 제4부(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라 불릴 만큼 공식·비공식적으로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언론의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역할에 대해 신정현(2005, 385)은 언론이 인체의 신경조직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각 부분을 연결 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복잡한 현대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정치·사회적 이슈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수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언론은 사실(fact)을 전달해 주는 기능과 함께 정치나 경제 권력을 취재 목표로 삼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건국 초 민주주의를 분석한 토크빌(Tocqueville 2003)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미국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Pateman 1970; Tocqueville 2003).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시민적 자유나 민주주의를 위한 감시·정보장치로서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부여되어 왔기 때문이다(Kovach and Rosenstiel 2001). 이를 통해 언론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형성하거나 공중여론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언론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중간적 위치로 정치과정에서 정치매개집단으로 국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평가를 주도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

의의 척도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라스웰(Lasswell)은 언론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감시기능에 주목하고 민주주의 이행·공고화 과정에서 언론이 권력과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라스웰은 언론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환경 감시기능,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상관 조정의 기능, 그리고 사회화 작용의 교육 문화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홍장선 2014). 이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중요한 이유는 ‘언론의 의제설정 (agenda setting)’과 ‘공론장(public sphere)’ 기능 때문이다(백선기 2015). 알려져 있다시피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은 맥콤스와 쇼(McCombs & Shaw 1972, 176-185)가 제기했다. 이들은 언론이 다루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뉴스가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그 이유는 언론이 의제를 설정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실제 맥콤스와 쇼는 1968년 미국 대선 기간 언론의 공공이슈 영향력을 조사했는데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게이트키퍼(gatekeeping)임을 확인했다(송경재 2006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론장 기능이다. 공론장은 하버마스(Habermas 2001)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주요 이슈나 의제들에 대해 공중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논의를 거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 과정에서 공론장 임무를 수행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사회의 많은 이슈와 의제들을 선정하고, 주변으로 확산하며,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적 오프라인 언론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이 더 발전한다.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기

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은 단순한 기술문명 진보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새로운 체계와 방식, 그리고 운동법칙을 창조하고 있다. 토플러(Toffler 1990)가 지적한 대로, 인류사에 있어 '제3의 물결'이라는 정보사회는 이전의 물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전 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같은 실물 중심의 물질적 재화(material goods)가 아니라 정보재(information goods)가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는 이른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를 타고 공공재로서 사회 내에서 협력적 정보를 생산·소비·유통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했고, 그것을 우리는 “인터넷 저널리즘 또는 인터넷 언론”이라고 지칭한다.²⁾

과거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³⁾ 또는 전통적 언론인 신문, 방송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제한적 시민참여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시민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언론은 개방적이지 않은 닫힌 매체(closed media)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언론은 ICT의 네트워크 연계성(network connectivity)을 장점으로 이용자 자신이 필요로 정보와 오락을 능동적으로 찾아다님으로써 이용자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언론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편리성과 시민친화성으로 인해 인터넷 언론사는 급증하고 있다. 2020년 3월 갱신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현황 등

²⁾ 현재 인터넷 언론은 <신문법> 등 법 제도에 의해 인터넷신문으로도 규정되었는데, 학계에서도 인터넷 언론, 인터넷 신문, 온라인 저널리즘, 온라인 신문 등으로 불린다. 이 글에서는 포털,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언론 활동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터넷 언론”을 사용할 것이다.

³⁾ 레거시 미디어는 최근 사용된 용어로 전통 미디어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TV(지상파, 케이블)·라디오·신문 등이 해당한다.

록일람표」에 따르면, 등록이 시작된 2005년 말 286개에서 2019년 말 인터넷 언론(인터넷 신문사)는 9,164개에 달한다(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5 검색 일: 2021년 3월 20일). 여기에 기존 오프라인 신문사와 방송사의 인터넷 서비스 강화, 포털의 뉴스 서비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융합(convergency) 인터넷 언론이 속속 출범하면서, 인터넷 언론의 영역은 사실상 전체 언론과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차원인 언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언론 중의 대표적인 형태인 포털만 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93.2%(복수 응답)가 뉴스를 <네이버>를 통해 얻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많은 뉴스 소비의 중요한 창구가 된 지 오래다. 포털 뉴스, 소셜미디어 등의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은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외치며 인터넷판을 발간할 정도로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 기기 성능이 좋아지면서 뉴스 접근성은 과거보다 혁신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언론의 역할을 두고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통로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으로서 기능하며, 인터넷 언론을 통한 정치 공론장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McCaughey and Ayers 2003; 오연호 2003).

그렇지만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언론의 역할에는 많은 사회과학자가 주목하지만,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선행 연구자들은 서구에서 인터넷 언론의 발달에 따라 언론사와 정당 등 정치매개집단이 약화의 길을 걷게 될 만큼 인터넷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지적하지만(김용철·윤성이 2005; Sunstein 2007; Diamond & Plattner 2011; Chadwick 2006; Castwlls 2001), 실제 실증연구 자체는 부족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정보사회의 인터넷 언론이 활성화되고 그 영향이 커지는 현실에 주목하여, 한국의 인터넷 언론과 공론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의 인터넷 언론의 발전과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인터넷 언론의 민주주의 역할을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살펴볼 것이다.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인터넷 언론의 대상은 기존 신문과 방송의 인터넷 언론 서비스, 신설 인터넷 언론, 포털 뉴스, 소셜미디어 뉴스 등으로 인터넷에서 언론 역할을 하는 범주를 모두 망라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을 설정한 이유는 인터넷에서의 언론 활동이 다양화되고 ICT 발전에 따라 언론 서비스 역시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언론이 다층화되면서 유튜브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등의 언론 역할을 하며 인터넷 언론 공론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등 인터넷 언론의 영역이 광범위해졌다. 이제 기존 레저시 미디어의 인터넷 판과, 포털 뉴스, 소셜미디어 뉴스와 함께 독립적인 인터넷 언론사들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분석의 방법론적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자는 한국의 인터넷 공론장이 하버마스(2001)이 제시한 공론장의 3가지 조건인 첫째, 보편적 접근가능성, 둘째, 배제되지 않는 다원성, 셋째, 합리적 정당화가 가능한 공간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심화시켜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특성과 민주주의적인 함의는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버마스의 이념형의 공론장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 강화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각각 분석했다. 마지막 4장은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양면성을 파악하고 공론장과 민주주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논의

인터넷 또는 인터넷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Chadwick 2006). 첫째는, 자유주의적 측면의 다원주의 시각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견이 생산·유통되는 것 자체는 여러 주관적 사고를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치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므로 곧 표현의 자유이자, 민주주의의 성과로 본다. 말 그대로 인터넷을 일종의 사상의 자유 시장으로 보고 당연히 다양한 논리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다원성이 인터넷과 인터넷 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이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둘째는, 인터넷이 사상의 자유시장인 것은 인정하지만,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가 가치와 의견을 공유하는 것에 용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결국 인터넷에서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가치와 정견을 가진 집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 역시 개인이 선호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자주 정보를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들이 집단화할 수 있다. 이에 주목한 스킨스테인(Sunstein 2007)은 인터넷에서의 논의나 언론이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분극화(polarization)가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양자의 시각은 이항독립적으로 인터넷 언론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양 측면이 서로 공

존하고 사상의 자유시장과 공론의 영역, 담론 생산과 갈등의 영역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 언론의 시각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논의는 공론장 논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론장(public sphere)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에 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하는 담론적 공간이다.

공론장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마스(2001, 31-32)는 언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참여 주체들의 이상적 의사소통 규범의 실천자는 공중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공론장이 공론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물리적·상징적 공간으로 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구성된다고 보았다(하버마스 2001; 이상길 2003, 15). 하버마스는 공론장등장이 새로운 공중의 영역이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즉 사적인 이해가 충돌하며 토론되어 공적인 의견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의견형성과정이 언론 등을 통해 국가에 비판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공론장의 역사적 형성과 사회 제도화는 하버마스가 보기에 의사소통적 이성이 사회통합의 규범적 토대로 기능하기 위한 현실적 유효성을 갖추도록 해주었다. 하버마스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이루어지던 활발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및 활발한 의사소통에 의거한 도시공동체의 합리적 운영에서 공론장 개념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그런데 하버마스도 적시했지만, 언론은 새로운 범주의 영향력으로서 언론 권력이 되고 의사소통망의 상업화와 밀집화, 언론사 설립자본의 증가와 조직화 정도의 증가를 통해 의사소통의 결론은 점차 강하게 유도되고 공적 의사소통의 접근 기회는 더욱 선택압력에 맡겨진다고 꼬집었다(이준웅 2009, 7).

한편,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적 공론장으로서 의미있는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논의한다. 첫째, 보편적 접근 가능성(general accessibility), 둘째, 어떠한 특권도 없는(elimination of all privileges) 다원적이어야 하며, 셋째,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discovery of general norms and rational legitimations). 즉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원적이며 합리성을 가진 공간이 공론장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의사소통에 근거한 이상적인 형태(ideal type)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론장으로서 인터넷 언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환경변화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경제·사회활동의 활성화로 기존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여 인터넷 또는 사이버 공론장(Internet or cyber public sphere)으로 지칭하기도 한다(송경재·장우영·임정빈 2006).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참여적인 공론 활동이다. 언론은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기존 오프라인 언론과 달리 인터넷 언론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형성되고 있다. 오프라인 언론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저널리스트나 사회 여론주도자(opinion leader)들이 생산하는 공론 활동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신문이나 TV와는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가지며 기존의 공론 활동과 다른 방식의 언론이 가능하다. 초기 연구는 인터넷을 주로 'B급 문화 또는 하위문화'의 형태로 간주하는 등 정치·사회·경제적 소수자 집단의 이해를 표출할 수 있는 대안적 공론장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라인골드(Rheingold 1993)는 '하위문화가 변성하는 체계(ecology system of culture)'라고 지칭한 것처럼, 인터넷은 기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언론을 활성화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견된다.⁴⁾

이에 인터넷 언론 공론장 연구는 초기 온라인상에서 대안적 공론장의 성격을 가지며 상호작용성, 당파성, 공동체성이라는 세 특성을 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Rheingold 1993; Schultz 2000, 205-221). 먼저, 상호작용성은 다양한 형태의 공론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직접적 혹은 매개적 수단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상호 간 의미를 창출해가는 반복적인 순환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영·김병철 2000, 179). 둘째, 당파성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주체들이 타 집단들에 대해 신념, 가치, 이해를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공동체성은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역동적으로 집단화 또는 분화하는 등의 공동체 형성과 해체의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 공론장에 관한 다층적 네트워크를 강조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여·개방·공유를 기치로 하는 웹 2.0 방식의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등장은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다층성과 네트워크 연계성을 벤클러(Benkler 2006)는 네트워크 공론장(networked public sphere)이라 지칭한다. 벤클러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 형성되는 자유

⁴⁾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면서 주로 사회적 논의가 아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식의 신문이 창간했다는 데서 확인된다. 풍자나 소수자, 노동자, 환경, 젠더 등 인터넷 언론이 초창기 창간된 것은 대안적 담론의 형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인터넷 언론의 초기 발전은 특히 주류 담론을 주도하는 집단이 아닌 소수 집단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인 박선희(2001), 김병철(2003)와 진행남(2002)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의 '대안' 의미를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를 대체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류 질서에 반하는 대항 담론과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송경재·장우영·임정민 2006).

로운 소통과 집단지식 형성은 시민이 공론장 관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산업사회의 매스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공론장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은 다양한 특성으로서 상호작용성과 당파성, 공동체성과 함께 사이버 공간의 행위자들 간의 경계를 바꿀 수 있는 미디어 생산 주체가 될 수 있다. 벤클러는 이를 통한 정보기술 사회의 발전은 인터넷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장된 담화 공간인 인터넷 공론장을 제공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이 주도하던 시기와는 또 다른 형태 행위자들의 자발적 사회 또는 국가 의제에 대한 합의와 지지를 동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벤클러가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장점에 주목했다면, 이와 달리 인터넷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공론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있다. 한중우(2012, 277-278)는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는 진지한 공론장으로 간주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는 최초의 리트윗이 일어난 다음에 몇 단계의 고리를 거치면서 계속 리트윗이 일어나야 하고 리트윗 수준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트위터의 사용자들은 이런 경향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거나 왜곡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중우는 인터넷 언론으로서 소셜미디어 트위터 메시지의 휘발성과 개인화가 극복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언론 공론장 연구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홍원식(2014, 262-300)은 공론장 연구의 규범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인터넷 공론장을 분석했다. 그는 공론장 논의에서 공통된 합의를 공통선의 추구라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 공론장이 담론을 통한 공통선 추구라는 공론장의 기본적 논의에는 충실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동선이 현실에서 구현이 힘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인터넷 언론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의 책임 있는 의사소통 행위를 실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강지웅(2016)의 연구는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진화에 따른 개별화에 주목한다. 그는 인터넷의 진화과정의 특성을 ‘네트워크 개인주의 공론장’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두 차례의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제1차 분화는 포털 토론장과 뉴스를 중심으로 한 공론장의 구조 개편, 2차 분화는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개인 사용자가 인터넷 언론 공론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시점이다. 1차 분화에서 포털은 많은 사용자를 보유해 특정 의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응집성이 있고 이는 인터넷 언론 공론장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차 분화는 개인 사용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연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과의 연계를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개인들과 연대하는 공론장으로 파악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터넷 언론 공론장 연구는 인터넷 언론이 전통적인 미디어가 형성한 공론장에 ICT적인 특성이 결합되어 과거와 다른 형태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언론 등장 초기에는 그것이 주로 주류 담론과는 대항적인 성격의 공론장이었으나(박선희 2001; 이종구 외 2005), 점차 ICT 발전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 진화는 전통적인 대안·대항적 공론장이란 획일적 인식으로는 현 단계 인터넷 언론의 다층적 공론장을 해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초기 연구가 단순한 오프라인적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면, 후기의 연구들은 공론장 분화에 주목하고 단일한 공론장이 아닌 다층 공론장의 가능성이 인터넷에서 확인되고 이것이 인터넷 언론에도 투영될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향후 연구는 인터넷 언론 공론장을 더 엄밀한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분석 틀을 바탕으로 한국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을 평가하여 이에 관한 획일

적인 파악보다는 다층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양면성: 강화 또는 약화?

앞서 논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초기에는 주류언론에 대한 대안·대항적 공론장의 의미가 강했다. 대안·대항적 공론장인 인터넷 언론은 당연히 오프라인 신문과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논의를 토론하는 공간으로 진화했다. 여기에 상호작용적인 토론장과 댓글 달기, 좋아요/싫어요 표시 등의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되면서 인터넷 언론은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공론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공론장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화 한 하버마스(2001)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공론장의 이상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는 공론장의 개방성과 상호주관적 상황해석과 발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사적 이해관계가 통합되는 일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사적인 이해가 통합되고 규범화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체계화한다면, 첫째, 잠재적 대화 상대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열려 있는 보편적 접근 가능성, 둘째, 일반적인 이해 가능하고 배제되지 않는 다원성, 셋째, 참가자들은 상호주관적 해석과 사적인 이해관계의 통합을 통한 정당화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념화할 수 있는 이상적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언론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확인된 측면이 어떻게 공론장 형성에 영향을 주고 민주주의 강화 또는 약화와의 상관성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 강화

(1) 보편적 접근 가능한 인터넷 언론 공론장

하버마스가 제시한 인터넷 언론 공론장 강화 요인을 바탕으로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민주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기존 오프라인 언론과 다른 인터넷 언론의 특성이 다층적이고 인터넷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프라인 언론보다는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다양한 민주적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개방적 참여를 통한 경쟁과 상호관적 이해의 공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기 이전 한국 언론 공론장은 정부가 통제하거나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왜곡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1987년 민주화 이전 언론은 권위주의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진입 장벽이 높은 한정된 오프라인 언론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뉴스를 생산했으며, 특히 뉴스 생산 차원에서는 제한적인 접근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기본법》의 축쇄가 풀리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자 오프라인 언론에서도 제도적인 자유가 확장되었다.⁵⁾

무엇보다 인터넷 언론의 등장은 뉴스 생산과 소비 차원에서 보편적

⁵⁾ 《언론기본법》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통치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언론규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했다. 하지만 언론의 공격 책임과 통제,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많아 1987년 11월에 폐지되었다.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 1992년 3월 <시카고 트리뷴>이 세계 최초 인터넷 버전의 언론 활동을 시작했고, 1995년 7월 세계 최초의 독립 인터넷 언론 <살롱(www.salon.com)>이 창간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 1995년 3월 한국에서도 <중앙일보>, 1995년 11월 <조선일보>, 1996년 9월 <동아일보>가 독립적인 인터넷 버전의 언론을 출범했다. 이후 1998년 7월 패러디 인터넷 언론인 <딴지일보>가 창간되고, 독립 인터넷 언론이 2000년 1월 <머니투데이>, 2000년 2월 <오마이뉴스> 등이 창간했으며 2002년 11월 토론형 인터넷 신문 <서프라이즈>가 창간했다. 그리고 2003년 1월 포털의 뉴스 서비스인 <미디어 다음>이 창간되었다.⁶⁾ 이후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뉴스 생산과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고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기존 언론사들의 인터넷 서비스, 포털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뉴스, 독립적인 인터넷 언론사 등이 난립하게 되었다(송경재·장우영·임정빈 2006).

주목할만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에 시작된다. 인터넷 언론이 주목받으면서 경쟁적으로 인터넷 언론사가 창간했고 2005년 286개에서 2019년에는 9,164개로 3,204%나 성장했다. 이 수치에는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언론화가 포함되고, 각종 전문지도 있지만, 인터넷 언론이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종합일간지와 같은 전 영역을 망라하는 인터넷 언론사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사, 정치, 경제, 취미, 종교, 지역, 게임, 육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터넷 언론사가 등장했다. 특히 인터넷 언론이 다루는 영역도 확대되어 2010년대 이후 전통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한정된 의제에서

⁶⁾ <미디어 다음>은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기사를 채용하여 기사를 생산, 보도, 유통했으나 이후 《신문법》 개정과정에서 뉴스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네이버>, <네이트> 등과 함께 포털에서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젠더·생태·어린이·노동·장애인·농어민·다문화 등 확대된 담론이 경쟁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언론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은 주류 담론이 담지 못한 다양한 여론을 표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 언론의 발전은 기존 오프라인 언론이 주도하던 공론장의 영역을 확대했고, 뉴스 생산과 소비의 개방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도 가지게 되었다. 인터넷 언론의 활성화는 전통적으로 종이와 방송이 주도하는 담론 구조가 인터넷 언론 참여를 통해 개방적 공론장이 되는데 기여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버마스가 이념형으로 제시한 공론장의 형성에서 생산과 소비구조의 개방적 참여가 가능한 공론장 조건은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면서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인터넷 언론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시사저널>이 '2020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5위가 <네이버>, 9위가 <다음카카오>에 랭크될 정도로 신뢰도가 상승했다(이민우 2020). 인터넷 언론은 중요한 사회정치적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한 공론장 기능을 수행했다. 실례로 2016년 촛불집회,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은 기존 오프라인 미디어와 갈등. 공존하면서 공론장 역할을 하여 다양한 시각의 정보 공유와 확산, 조직화·동원의 공간으로 발전했다.

(2) 배재되지 않는 다원성을 가진 인터넷 언론 공론장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21세기 인터넷 언론이 형성한 공론장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참여 공간이 되었고 오프라인 언론과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론장을 구축했다. 하지만 인터넷 공론장의 위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날 때이다. 2000년대

이후 많은 인터넷 언론이 이념적으로 분화되면서 공론장도 분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주관성의 통합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면적인 상호주관성의 통합이 일상화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통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특징이 나타난다.

초기 한국의 인터넷 언론은 오프라인 언론의 영향과 대안·대항적 언론의 특성으로 인해 이념적 분화과정을 보였다. 초창기 인터넷 언론은 전통적인 언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대항언론의 성격이 강했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대두와 함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는 진보와 보수 성향의 언론사가 줄이어 창간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초창기 2000년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민중언론 참세상> 등 진보적 성향의 인터넷 언론이 공론장의 영역에서 발전하다가 이후 <데일리안>, <뉴데일리> 등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도 창간했다. 이 과정은 배제되지 않는 다원적인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 인권, 젠더, 생태, 종교, 지역 등 다양한 시각의 인터넷 언론은 주류 담론에서 벗어난 소수의 목소리를 제기하거나, 기존 언론이 다루지 못한 영역에서의 자신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다원성을 가진 공론장 역할을 했다(박선희 2001; 송경재·장우영 2009).

그 결과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이념적·지역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서로 배제되지 않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같은 공론장으로 발전했다. 물론 선거 과정이나 사회적 쟁점이 부각할 때 진영논리에 입각한 극심한 대립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을 배제하기 보다는 다원적이며 다양한 시각의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특

히 인터넷의 특성은 벤클러(Benkler 2006)가 지적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오프라인 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다원적인 논의를 형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3) 상호주관적 해석과 사적인 이해관계 통합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

한국의 인터넷 언론은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논의의 공간이 되었지만, 이념적 대립의 극화로 인한 문제점이 노정되기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론장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 해석과 사적인 이해관계의 통합이라는 마지막 조건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현실 정치적 가치와 논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 공론장에서 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에서 포털 플랫폼의 등장은 이해관계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뉴스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포털은 법적으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동법 제2조 6)로 규정되어 뉴스를 기사 배열원칙에 따라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었다. 포털뉴스의 역사적인 근원을 따지면, 처음에는 속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개편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1999년 <야후 코리아>가 뉴스 단문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2003년 <미디어 다음>이 등장하고 <네이버>, <네이트> 등이 속속 이어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포털의 강력한 접근성과 집중화 현상에 따라 뉴스 소비도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포털뉴스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시각의 언론 뉴스를 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포털은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적인 특성이 정보 집중지로서의 포털의 장점이 결합한

것이다(류석진·윤성이·장우영·송경재·조희정 2008). 그 영향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Newman with Fletcher, Kalogeropoulos, & Nielsen. 2019, 14)가 발간하는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 Report 2019*에 따르면 한국은 <네이버>와 <다음>과⁷⁾ 같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포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주요한 사회적 사건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사적 이익의 공적인 합의라는 공론장의 분화와 종합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6~17년 한국의 촛불집회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인터넷 공론장의 분화와 종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6년 박근혜 전대통령 퇴진 운동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인터넷 언론까지 탄핵 찬성의 대의를 따르며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이 종합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오프라인 언론 역시 진보와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 일부 극단적 보수성향 언론을 제외하고 - 다수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통합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여론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인 지표로도 확인되는데, 2016년 11월 1주차~12월 2주차까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 한국갤럽의 국정 수행 평가는 4~5%에 머물렀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39호). 물론 공론장의 종합과 토론을 통합 합의는 일시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과정에서 이념적 차이, 지역 차이를 넘어서 개방적인 시민의 참여를 통한 종합과 합의는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터넷은 카스텔(Castells 2009)이 강조한바, 기술적으로 사회적 관행

7)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회사는 <카카오>이나 <카카오>가 다양한 방면의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논문에서는 회사명이 아닌 포털명 <다음>을 사용하도록 한다.

에 의해 수정되기 쉬운 적응력이 높은 기술로 정보전달과 확산, 토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하다. 그런 맥락에서 인터넷 언론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기회구조를 넓혔고 새로운 참여 저널리즘의 양식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공론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20세기 이후 정보의 생성과 배포 능력은 급속하게 향상되었지만, 효과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부재했다. 이를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인터넷 언론은 이 위기를 쌍방향적인 의사소통과 시민의 정보 능력을 향상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장의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2)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 약화 가능성

(1) 공론장의 이념적 분극화

인터넷 언론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시민들이 양극화되는 경향은 최근 뚜렷해진다. 르바인(Levine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숙고의 과정을 통해 입장의 타협점을 찾아내고 때로는 합의에 이르기도 하나, 이념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의 집단은 오히려 이념을 더욱 극단적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언론은 시작부터 기존 언론과의 대안·대항언론 성격으로 이념적인 지향성이 강했고, 그 결과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은 종종 과도한 이념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2년 대선 이래 인터넷 언론의 이념적 분극화는 인터넷 공론장을 진보와 보수진영 간의 담론 투쟁 장(場)으로 만들었다. 작은 정치 이슈일지라도 인터넷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그것이 다시 기존 오프라인 기반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는 방식의 보도 행태가 나타나면서 인터넷 언론 역시 기존 언론과 같은 이념적 정파성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인터넷 공론장 문제는 단지 인터넷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방에도 확산되었다. 진보 인터넷 언론은 이념 성향이 진보적인 네티즌이 접속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네티즌은 보수적인 곳으로 접속한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이후 나타난 이념적 분극화는 한편으로는 다원성을 강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극화를 가속화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언론과 토론장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만 빠질 경우, 소수집단 의견의 과대평가(over-evaluation), 감성 호소 의제나 단기적 담론 양산, 정파성에 따른 의제 조작, 신뢰의 위기 등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Corrado and Firestone 1996; Castells 2001). 이런 현상은 인터넷 언론이 결국 공론장으로서 협의와 숙고(deliberation)를 부재하게 해서 대립과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몽크(Mounk 2018)는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이념적 분극화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념적인 분극화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심의없는 위험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경고했다. 실제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만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인터넷 언론이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등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언론과 대비되는 공론의 공간을 만들기도 했지만, 인터넷 내부에서도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주도하는 방향에서의 분절화·파편화·분극화라는 세포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언론의 대안 공론장이었던 인터넷 언론도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만드는 공론장도 마찬가지로 점차 내부에서 분화되어 통합되지 않는 분열의 공

간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포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종속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 훼손은 이른바 플랫폼 종속에서도 나타난다. ICT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스마트 기기와 5G 등의 발전은 개별 웹사이트 기반의 인터넷 언론에서 플랫폼 중심 인터넷 언론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종속 인터넷 언론과 독립 인터넷 언론은 자체 웹사이트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플랫폼에 입주하여 언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포털뉴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포털뉴스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뉴스를 증개해주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포털은 인터넷의 관문이란 표현답게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특히 한국의 포털사이트는 이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금융, 오락 등을 모두 서비스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민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8%이고 다수 시민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포털뉴스 검색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인터넷 언론사의 뉴스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포털 플랫폼 중심의 언론 유통채널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 포털뉴스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포털의 종속화, 포획 논란도 등장했다(송경재 2019).

소셜미디어 플랫폼 역시 언론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많은 언론사가 진출했다. 기존 언론사와 함께 1인 미디어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소셜미디어는 인터넷 언론의 경쟁 공간이자, 공론의 공간이 되었다. 가장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은 역시 유튜브이다. 유튜브는 과거 논객이나 정치평론가들이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시각과 해석을 동영상 뉴스로 제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한 가짜뉴스(fake news) 논란도 있지만, 이미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중요한 인터넷 공론장으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포털뉴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형 인터넷 언론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독립성을 약화할 위험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뉴스에서 생산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Mounk 2018). 언론사 차원에서도 포털 플랫폼에 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지만, 자체 웹사이트가 축소되면서 그동안 유지된 댓글과 시민과의 공론의 공간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었다. 역으로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과 소셜미디어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결과 기존 언론과 인터넷 언론의 플랫폼 종속은 구조적인 현상으로 정착했고, 인터넷 공론장은 포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이전하고 있다.

(3) 플랫폼의 알고리즘(algorithm)과 필터 버블(filter bubble)

앞서 플랫폼 종속으로 인한 인터넷 공론장 훼손과 함께 가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기사 배열과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이다. 과거 포털뉴스는 기사의 선택권이 의제 설정과 편집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개개인의 뉴스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 기사 배열이다. 유튜브 역시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시스템을 초기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필터 버블이다. 필터 버블은 정보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이다. 일명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이라고도 한다. 주요 플랫폼은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채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것이 알고리즘의 적용이다. 하지만 결국 이런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개인이 좋아하는 뉴스, 보고 싶은 뉴스만 보게 되고 결국 정치·사회 문제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주의, 주장이 주입되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된다. 필터 버블은 사회와 정치에 악영향을 미쳐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의 주장만을 강화하는 독선적으로 발전하면서 건강한 토론과 심의, 합의의 영역은 줄어들게 된다(송경재 2019).

인공지능이 정보처리의 편리를 위한 과정에서 만든 알고리즘이 뉴스와 정보생산과 유통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차단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뉴스와 정보만을 소비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알고리즘으로 포털뉴스와 소셜미디어 뉴스 등의 플랫폼 인터넷 언론에 반영되고 있다. 결국 필터 버블은 건강한 인터넷 언론의 다양한 논의가 종합되는 공론장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분리된 공론장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이기도 하다. 그 결과 플랫폼 인터넷 언론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과 어떤 교류 없이, 논쟁과 자기 뜻을 강화하는 형태로 인터넷 공론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요약과 함의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공론장의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언론이 정치권력을 감시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대표성은 학계에서도 논쟁거리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언론학자 커런(Curran 2014)은 언론을 책임지지 않는 권력(power without responsibility)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투명한 정치구조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공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토크빌(2003)의 통찰은 현대에도 유용하다. ICT를 활용한 인터넷 언론 역시 역사는 짧지만, 오프라인 언론과 함께 발전하여 현재 중요한 언론 활동의 행위자가 되었다. 인터넷 언론은 기존 오프라인 언론인 TV, 신문 등과 경쟁, 협력, 융합(convergency)하며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언론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인터넷 언론이 민주주의 특히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시민참여를 통한 여론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의 세부 기준으로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념화된 공론장의 조건인 첫째, 잠재적 대화 상대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열려 있는 보편적 접근 가능성, 둘째, 일반적인 이해 가능하고 배제되지 않는 다원성 그리고 셋째, 참가자들은 상호주관적 해석과 사적인 이해관계의 통합을 통한 정

당화에 대비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한국 인터넷 언론이 형성한 공론장의 가능성과 위협 요소들에 관해 진단했다.

분석 결과, 첫째, 인터넷 언론은 시민참여와 개방성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상호주관적인 논쟁의 공간으로 발전했다. 그런 맥락에서 인터넷 언론은 오프라인 언론과는 경쟁과 협력의 대안·대안언론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 언론은 오프라인 언론과 함께 인터넷 공론장의 주요한 정보공급자이자, 중개자, 수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 활성화의 요인은 인터넷 정치토론장의 형성, 인터넷 공론장의 의제 설정 방식의 시민참여 강화, 공론장에서의 다양한 개방적 참여를 통한 경쟁과 상호주관적 이해의 공간으로 진화 등이었다. 반면, 인터넷 언론이 공론장을 약화할 수 있는 요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이념적 분화, 플랫폼 종속, 플랫폼의 알고리즘 필터 버블 등이었다. 이 요인들은 인터넷 공론장의 분화와 파편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여 인터넷 언론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강화에 기여하는지에 관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주도하는 공론장과 다르게 뉴스 생산자가 다원화되면서 경쟁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버마스가 이념화된 공론장으로서의 개방성과 일반적인 이해 가능성의 공간, 그리고 상호주관성의 공간으로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분명 제대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 형성에서 주목할 부분은 참여자의 개방성과 상호작용적인 의사 토론의 가능성이다. 그것은 인터넷 공론장의 의제 설

정 권한의 구조변화로 연결된다. 과거 공론장에서 의제 설정을 주도했던 이들은 전문가와 소수의 여론 주도층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은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생산된다는 점에서 시민 주도성이 과거보다 강해졌다. 이는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지식인과 여론 주도층이 만드는 공론이 아닌 댓글과 토론, 시민참여와 의견이 반영된 공론이 형성된다. 이미 인터넷 언론의 댓글과 토론장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참여의 공간이자 토론의 공간으로 발전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둘째,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 언론이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반으로 수렴되면서 점차 공론의 공간이 이념 양극화, 알고리즘이나 필터 버블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일반적으로 공론장은 다양성과 합의, 독립성과 종합의 과정에서 그 의미가 극대화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면 공론장의 해체와 약화가 불가피하다. 인터넷 언론 공론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사적인 이해가 충돌하더라도 그것이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되고, 공적 의견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형성과정은 국가에 비판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하면, 플랫폼 기반 인터넷 언론은 공론장의 강화보다는 인터넷 언론 공론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럼 한국에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양면성이 형성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념 양극화 접근을 강조하는 견해와 오프라인 언론 구조의 온라인 공간으로의 반영에 따른 정상화 접근을 강조하는 견해다. 우선,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이념적 특성과 플랫폼 집중, 필터 버블로 인한 분화의 산물이란 해석이 있다. 인터넷 언론은 이념적 당파성이 개입될 경우, 정치 담론의 과잉생산과 구성원

들 사이의 분열과 이합집산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필터 버블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오프라인 보수 중심의 언론 구조가 온라인으로 확산되어 인터넷 언론의 양면성이 심화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현상의 온라인 투영으로 불리는 정상화 가설(normalization hypothesis)로 설명된다. 인터넷 정치학자 채드윅(Chadwick 2006)은 인터넷 공론장이 발전하면 인터넷만의 현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법칙이나 현상이 인터넷으로 투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인터넷 언론 공론장에 적용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오프라인의 언론 선택법칙이 인터넷에 투영됨에 따라 인터넷에서도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오프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보수(또는 진보)성향 언론사의 영향력이 점차 온라인에서도 강하게 투사된다는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함의로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념화된 공론장의 개방성과 참여 가능성, 사적인 이해관계의 공적인 토론이란 조건을 가지고 공론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위협요인도 같이 발견됨을 확인했다. 연구자는 이를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양면성(double-sidedness)”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 인터넷 언론의 양면성은 공론장의 강화와 쇠퇴라는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이 한국적 특색을 가진 공론장으로 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공적인 토론이 부족한 단일하지 않은 공론장으로 이념적 양극화의 위험성으로 나타난다. 앞서 분석에서도 확인했지만,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개방성과 상호작용적인 의사 토론의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 증가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중심이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호작용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의 특징이 언론 환경에 반영되어 공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존재

한다. 그렇지만 이념적 분극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에 따른 필터 버블 문제는 장기적으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을 약화시켜 공론장의 해체 또는 약화가 우려된다.

넷째, 결론적으로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을 통합의 시각보다는 다른 시각의 접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해체 요인으로 지적한 이념적 분극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공론장의 분화와 수렴 과정으로 볼 필요도 있다. 선스타인(Substein 2007) 같은 학자들은 현대사회의 공론장 특성을 분석하면서 대중언론 공론장 역시 단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인터넷 공론장을 연구한 킨(Keane 1995)은 이미 현대사회 공론장은 단일하지 않은 특성을 간파하고 공론장이 통합적인 형태가 아닌 분절화·파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 역시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과 같이 이념별·지역별 차이에 의한 공론장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이념적 분극화는 자연발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화가 있다면, 종합의 과정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분화된 공론장이 다시 구조변동을 통해 종합화된다는 하버마스의 이념적 공론장의 조건에도 부합한다. 분화된 공론장이 일상적이라면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상호주관적인 토론의 종합화를 거쳐 큰 가치의 공론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016~17년의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인터넷 공론장의 분화와 종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 연구는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형성과 재구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언론의 공론장의 양면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인터넷 언론 공론장은 초기 오프라인 언론의 대항적인 의미에서 성장하였으며, 점차 오프라인 언론의 온라인화로 융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하버마스가 제기한 이념형의 공론장은 유동적이고 강화와 쇠퇴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면성을 보인다. 이러한 양면성은 장기적으로 한국 인터넷 언론 공론장이 유지 존속하는 구심력이 될 수도 있지만, 쉽게 약화·해체될 수 있는 원심력이 될 수도 있다. 현재는 균형점이 있지만,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축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터넷 공론장의 양면성과 다층성을 확인하고 분화와 종합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분히 현실 현상을 중심으로 귀납적인 해석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 공론장의 다양한 측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런데도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인터넷 언론의 거시적인 영향과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추출하여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인터넷 언론의 민주주의와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논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021년 4월 8일 접수, 5월 9일 심사완료, 5월 21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지용. 2016. 『온라인 공론장의 분화와 네트워크 개인주의 공론장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 김병철. 2003. 『온라인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 김용철·윤성이. 2005.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 류석진·윤성이·장우영·송경재·조희정. 2008.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 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서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45(2). 117-155.
- 박동진. 2004.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과 4.15 총선 세미나 자료집. 서울. 5월.
- 백선거. 2015.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경재. 2020.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 2020 하계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서울. 8월.
- 송경재. 2019. “포털의 뉴스 큐레이션 이대로 좋은가: 인공지능 뉴스 편집과 저널리즘의 위기.” 전국언론노동조합 토론회. 서울. 11월.
- 송경재. 2006.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29. 178-210.
- 송경재·장우영. 2009. “인터넷과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미발표 원고.
- 송경재·장우영·임정빈. 2006. 『한국의 포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신문발전위원회.
- 신정현. 2005. 『정치학』. 서울: 법문사.

- 오연호. 2004. 『대한민국 특산품 오마이뉴스』. 서울: 휴머니스트.
- 이민우. 2020.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사저널』 1618호.
2020.08.19.
- 이상길. 2003. “공론장의 사회적 구성: 가브리엘 타르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1). 5-30.
- 이종구 외. 2005.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M&B.
- 이준웅. 2009. “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공중의 형성,” 『언론정보연구』. 44(2). 5-32.
- 진행남. 2002.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 서울: 나남출판.
- 최영·김병철. 2000. “인터넷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4(4). 172-200.
- 커런, 제임스 지음. 이봉현 옮김. 2014. 『미디어와 민주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하버마스, 위르겐. 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출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중우 지음, 전미영 옮김. 2012. 『소셜 정치혁명세대의 탄생』. 서울: 부키.
- 홍원식. 2014. “인터넷 공론장 돌아보기 : 소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10(4). 263-300.
- 홍장선. 2014. 『행정 PR 매뉴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enkler, Yochai.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Bonchek, M. S. 1997. *From Broadcast to Netcast: The Internet and the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Castells, Manuel. 2001 *The Internet Galax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rrado, Anthony & Firestone, Charles. 1996. *Election in Cyberspace: Toward a New Era in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 Diamond, Larry and Plattner, Marc. 2012. *Liberation Technology: Social Media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eane, J. 1995.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 *The Communication Review*. 1(1).
- Kovach, Bill & Tom Rosenstiel.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David Black Literary Agency.
- Levine, Peter. 2000. "The Internet and Civil Society."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20(4).
- McCaughey, Martha & Ayers, Michael. 2003. *Cyberactivism: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McCombs, Maxwell & Shaw, Donald.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176-185.
- Mounk, Yascha. 2018.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 Danger and How to Save It*. Harvard University Press.
- Negt, O. & Kluge, A. 1993. *Public Sphere and Experience: Toward an Analysis of the Bourgeois and Proletarian Public Sphe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ewman, Nic with Fletcher, Richard, Kalogeropoulos, Antonis, & Nielsen, Rasmus Kleis. 2019.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 Report 2019*.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Pavilk, J, 1997. "The future of online journalism: A guide to who's doing what." *Columbia journalism Review*, July/August.
- Pateman, C.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Schultz, T. 2000. "Mass media and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forums and reader email." *Media, Culture & Society*. 22.
- Sunstein, Cass.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 Toffler, Alvin. 199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Abstract

A Study on Double-sidedness of the Internet Media Public Sphere and Democracy in Korea

*Kyong Jae Song**

This research paper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democracy and tried to analyze the influence and implications of the structure of the Internet media and democracy, especially the public sphere. As for the detailed analysis criteria, based on the conditions of the public sphere suggested by Habermas, the possibility and risk factors of democracy consolidation in the current Korean Internet public sphere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public sphere of the Internet media in Korea has participatory openness and has developed into a space for independent and intersubjective debate. Second, the Internet media, along with the offline media, are the main information providers, intermediaries, and converging agents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Third, the factors that revitalized the public sphere of the Internet media were the formation of the Internet political forum and the integration of interests.

Key Words : Internet Media, Public Sphere, Democracy, Restructuring, Double-sidednes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Sangji University.

